

음악기록을 통해서 본 '가수들의 노래와 삶'

노래는 마음 파장 움직임이다... "맑고 밝은 곡 불러야"
슬픈 노래 부른 가수들, 일찍 죽거나 비극적인 삶

윤심덕, 배호, 차중락, 김정호, 김현식 등 요절...
'해 뜰 날' 부른 송대관 출세

글. 왕성상 (아시아경제신문 취재본부장)

지구촌에서 우리나라 사람만큼 노래 부르길 좋아하는 민족도 없는 것 같다. 좋고 기뻐도 노래, 슬프고 괴로워도 노래다. 음악은 남녀, 노소, 계급, 직업, 종교를 가리지 않고 생활 속 깊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이다. 장르에 따라 가요, 민요, 노동요, 가곡, 동요, 팝송, 요들송 등 다양하다. 애국가, 교가, 군가, 사가, 찬송가, 찬불가, 친목회가, 동아리노래까지 목적과 용도에 따라 갖가지다. 우리는 때와 장소에 알맞은 노래를 부르고 들으며 인생과 세월을 호흡한다. 무겁고 바쁜 삶에 숨통을 터주며 윤택유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노래다. 음악 관련 기록을 통해서 본 '가수들의 노래와 삶'을 더듬어본다.

노래제목, 가사내용대로 운명 바뀌어

세상을 일찍 떠난 가수들 대부분은 무겁거나 어두운 노래를 불렀다. 노래는 가사에도 곡조까지 실어 말보다 영향력이 더 크다. 이별, 죽음, 슬픔, 한탄, 고통, 아픔의 노래를 부른 가수는 목숨이 짧을 확률이 높다. 가수는 노래취입 때 같은 곡을 2000~3000번씩 부르며 연습한다. 작곡가로부터 "감정을 좀 더 넣으라"란 주문을 받고 그렇게 하다보면 서서히 그 노래 주인공이 돼간다. 생활스타일, 사고방식, 마음자세가 가사내용대로 따라간다는 게 전문가들 분석이다. 사람의 뇌세포 중 98%가 말의 영향을 받는다는 연구결과가 뒷받침해준다.

사람은 어떤 말을 하고 노래를 부르느냐에 따라 운명이 달라진다는 결론이다. 한국노랫말연구회가 가수 1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우울한 노래를 부른 가수는 일찍 죽거나 슬픈 운명의 길을 걷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수는 자신이 부른 노래처럼 운명이 된다"는 연예계 속설이 사실로 확인된 셈이다.

우리나라 가요기록에서 대중가요 1호곡 '사(死)의 찬미'를 부른 윤심덕(1897년~1926년 8월 4일, 평양 출생)은 29살 때 한·일 현해탄에서 투신자살했다. 성악가, 가수 겸 배우인 그는 경성고등보통학교 사범과를 졸업하고 원주에서 1년간 소학교 교원으로 근무했다. 그해 조선총독부 관비유학생으로 뽑혀 일본 우에노(上野)음악학교 성악과에 입학한 그는 성악만으로 먹고 살 수가 없어 가요를 부르기 시작, 방송출연이나 음반취입을 했다. 1926년 여동생(윤성진)의 미국유학길을 배웅키 위해 일본에 갔다가 닛토(日東)레코드회사에서 24곡을 취입하고 귀국길에 유부남인 김우진을 만나 바다에 몸을 던져 삶을 마감했다. 이바노비치 작곡인 '도나우강의 푸른 물결'에 자신이 노랫말을 쓴 '사의 찬미'는 그녀가 죽고 난 뒤 더 유명해졌다.

'산장의 여인'을 부른 권혜경(1931년~2008년 5월 25일, 삼척

출생)도 암에 걸린 뒤 요양하며 재생의 길을 걷다 세상을 떠났다. '산장의 여인'은 그가 26세 때인 1957년 발표한 데뷔곡이자 대표곡이다. 1994년 5월부터 충북 청원군 남이면에서 치매증세로 투병하다 삶을 마감했다.

여가수 양미란도 '흑점'을 부르고 얼마 안돼 골수암을 앓다 1980년 요절했다. '흑점' 노래엔 "태양의 흑점처럼 어두운 내 가슴~"이란 가사가 나온다. 우주에서의 흑점은 사람 몸의 암에 비유된다. 그녀의 남편인 작곡가 정민섭도 1987년 폐암으로 세상을 떠났다. 이 부부는 '달콤하고 상냥하게' '당신의 뜻이라면' '범피 가시네' '봄길' '흑점' 등 많은 히트곡들을 발표했으나 둘 다 세상을 떠났다.

'곡예사의 첫사랑'을 부른 박경애(1954년 9월~2003년 7월 14일, 인천 출생)도 밝지 않는 노래를 부르다 삼성서울병원에서 폐암으로 별세했다. '곡예사의 첫사랑' 가사엔 죽음을 암시하는 "울어 봐도 소용없고 후회해도 소용없는~"이란 내용이 나온다. 그는 인천출신의 주정기와 1973년 여성듀엣 '산이슬'을 결성, 번안곡 '마지막 남은 것'으로 데뷔했다. '마지막 남은 것'이란 제목도 죽음을 떠올리는 듯하다.

'머무는 곳 그 어딜지 몰라도'를 히트한 박경희(1951년 1월 6일~2004년 8월 9일, 창원 출생)는 패혈증과 신장질환으로 53세 때 숨졌다. 그는 웨라톤위커킬호텔 전속가수로 있으면서 그 무렵 유행하던 포폴러음악을 즐겨 불렀다. 1974년 '저 꽃 속에 찬란한 빛이'로 데뷔한 뒤 이 곡으로 제1회 한국가요제 대상을 받았다. 그는 국제가요제 전문가수로 이름을 날렸으나 1979년 결혼하면서 가수 생활을 접었다. 1993년 남편과 사별한 뒤 고향에서 주부가요 노래교실을 운영하고 2004년 6월 방송에 출연하는 등 재기의욕을 보였으나 그해 8월 9일 갑작스런 지병 악화로 세상을 떠났다.

탤런트 여가수였던 박길라(1965년~1986년 10월)는 '나무와 새'(이건우 작사, 강석호 작곡) 등을 발표해 사랑 받았으나 1986년 10월 가수데뷔 기념콘서트를 마치고 무대 뒤에서 심장마비로 숨

졌다. 중앙대 연극영화학과를 졸업, KBS텔런트로 1983년 드라마 '고교생 일기'에 출연했다. 그는 '우린 정말 사랑할 수 없어요', '내 사랑 애니', '내님은 꽃 한 송이', '겨레여 겨레여', '사랑의 분노', '그대 가슴에 얼굴을 묻고', '연인', '사랑의 모순', '길 잃은 연인'을 취입했다.

남인수, '눈감아 드리오리' 부르고 별세

어두운 노래를 불러 요절한 남자가수들도 많다. 가요계 황제로 통했던 남인수(1918년 10월 18일~1962년 6월 26일, 진주시 출생)는 병상에서 취입한 '눈감아 드리오리'를 마지막으로 45세에 별세했다. 1936년 '눈물의 해협'으로 데뷔한 그는 스포츠에 능하고 당구도 잘 쳤으나 폐결핵으로 생을 마감했다. 그는 1945년 해방 전에 800여곡, 해방 후에 200여곡을 취입한 맑은 목소리의 명가수였다.

'마지막 잎새', '영시의 이별' 등을 부른 배호(1942년 4월 24일~1971년 11월 7일, 중국 산둥성 지난 출생)는 29살 때 신장병으로 요절했다. 차중락이 세상을 떠나고 3년 뒤로 미혼인 채 눈을 감았다. 그는 삼성중학교 중퇴 후 1963년 1집 앨범 '두메산골'로 데뷔했다. 본명은 배만금, 어렸을 때 집에서 부르던 이름은 배신웅이다.

이에 앞서 차중락(1942~1968년 10월 11일, 서울 출생)은 '낙엽 따라 가버린 사랑'을 부르고 27살에 낙엽처럼 쓸쓸히 가버렸다. 인쇄소를 하는 아버지와 경기여고 육상선수출신의 어머니 사이에서 8남3녀 중 셋째로 태어난 그는 예·체능에 뛰어났고 미스터리코리아로 뽑혔을 만큼 몸이 좋았다. 1967년 이봉조가 작곡한 '사랑의 종말'로 TBC 방송가요대상 남자가수 신인상을 받고 배호와 함께 가요계 쌍두마차로 이름을 날렸다. 그 바람에 무척 바쁜 스케

줄에 지쳐갔다. 그는 1968년 9월 서울 동일극장 무대 위에서 고열로 쓰러진 뒤 의식불명이 됐고 그해 자신의 대표곡 '낙엽 따라 가버린 사랑' 발표 1주년이 되는 날 뇌막염으로 세상을 떠났다. '낙엽 따라 가버린 사랑'은 한국의 엘비스 프레슬리로 불리던 그가 엘비스 프레슬리의 'Anything thats part of you' 멜로디에 강찬호의 가사로 부른 노래다. 그는 1966년 12월 키보이스시절 발표한 이 노래를 계기로 솔로가수가 돼 노래를 녹음한지 2년 만에 타계했다.

1973년 '이름 모를 소녀'로 데뷔한 김정호(1952년 3월 27일~1985년 11월 29일, 광주 출생)는 폐결핵으로 요절했다. 경기도 금촌 공원묘원에 불후의 명곡 '하얀 나비' 노래비가 묘비를 대신해 서있다. '하얀 나비'는 서양의 7음계 중 '파'와 '시'를 쓰지 않고 우리나라 고유의 5음계(궁상각치우)로만 노래해 특이하다. 광주에서 태어나 수창초등학교를 다닌 김정호(본명 조용호)는 제대로 된 음악교육을 받지 않고서도 고교시절 이 노래를 만들었다. 포크가수이자 싱어송라이터였던 그는 외할아버지 박동실 명창, 판소리꾼 어머니, 아쟁의 명인 외삼촌 영향도 컸지만 호남의 음악적 감수성을 얻었다는 평가다.

김현식(1958년 1월 7일~1990년 11월 1일, 서울 출생)은 '이별의 종착역', '떠나가 버렸네', '내 사랑 내 곁에'를 부르고 간경화로 세상을 떠났다. 밤샘녹음, 폭음, 줄담배에 따른 건강악화가 원인이었다. 그는 1987년 11월 대마초로 구속되고 5개월 뒤 식발한 채 서울 63빌딩에서 재기의 콘서트를 열어 매스컴을 탔다. 그는 한국인의 정서인 '한'을 얘기하는 듯, 피를 토하는 듯한 목소리로 팬들을 사로잡았다.

유재하(1966년 6월 6일~1987년 11월 1일, 안동 출생)도 밝지 않은 노래를 부르고 25살 때 요절한 가수다. 대학가출신 라이브가수로 '우울한 편지'를 부르고 1987년 11월 1일 새벽 한남대교 북단 강변도로에서 승용차운전 중 가로수를 들이받아 숨졌다. 그는

데뷔작이자 유작이 된 '우울한 편지'를 남기고 떠나 아쉬움을 더해준다.

신세대가수 서지원(본명 박병철)은 20세 때 약물 과다복용으로 숨졌다. 1994년 데뷔한 그는 1996년 1월 1일 밤 서울 대방동 자신의 아파트에서 자살한 채 발견됐다. 2집 발표를 앞둔 그가 경련을 일으키고 있는 것을 한 가수지망생이 발견, 병원으로 옮겼으나 숨을 거뒀다. 유작이 된 2집 음반의 타이틀곡은 공교롭게도 '내 눈물 모아'였다.

포크가수 하수영(1948년~1982년 1월 1일, 청주 출생)은 '아내에게 바치는 노래'를 부르고 세상을 떠났다. 1967년 가수로 데뷔해 '길', '찬비' 등을 부른 그는 교통사고에 이어 뇌출혈로 요절해 주위를 안타깝게 했다. 김광석(1964년 1월 22일~1996년 1월 6일, 대구 출생)은 '서른 즈음에'를 부르고 1996년 초 33살 때 자살했다. 명지대 경영학과를 나온 그는 1984년 노래를 찾는 사람들 1집 앨범 '산하'로 데뷔했다.

남매가수로 활동하다 둘 다 요절한 사례도 있다. 장덕(1962년 4월 21일~1990년 2월 4일, 서울 충무로 4가 출생)과 장현(1955년~1990년 8월 17일) 애기다. 여동생 장덕은 1990년 2월 4일 새벽 서울 마포구 염리동 진주아파트에서 수면제, 기관지확장제를 너무 많이 먹어 29살 때 세상과 이별했다. 그는 '예정된 시간을 위하여', '이별인줄 알았어요', '너에게 안녕을 고할 때', '슬픈 약속', '내가 만나는 하나님에게', '미소를 띄우며 나를 보낸 그 모습처럼', '님 떠난 후', '소녀와 가로등'을 불렀다. 한국 첫 여성 싱어송라이터 겸 PD(서울시립교향악단 첼리스트 아버지 장규상 씨와 서양화가 어머니 이숙희 씨 사이 1남1녀 중 막내)로 기록된다. 그녀는 클래식음악을 좋아했던 어머니 영향으로 피아노를 배우며 자랐고, 오빠 장현은 바이올린을 배웠다. 초등학교 2학년 때 부모가 이혼하자 장덕은 고모 집에, 장현은 아버지 친구 집에 살았다. 아버지는 지방공연 등으로 남매를 돌보지 못했다. 초등학교 4학년 때 동양사상에 빠진 아버지를 따라 도봉산 절에서 1년간 학교를 다니지 못하고 갇혀 지낸 적도 있다. 그는 아버지가 매일 술을 마시며 집을 비우고 새 여자까지 얻자 자살을 꾀하기도 했다. 1973년 '누가 누가 잘 하나' 등 동요경연대회 1등을 한 그는 1977년 안양예고 재학 때 작곡한 '소녀와 가로등'을 진미령에게 줘 제1회 MBC 서울국제가요제에 출전하기도 했다. 가요계 규정상 작곡가와 가수가 무대를 꾸며야해 장덕은 빵모자를 쓴 감쪽한 모습으로 오케스트라를 지휘하는 진풍경을 펼쳤다. 1977년 7월 9일 서울 명보극장에서 개봉된 박태원 감독의 '선생님 안녕' 영화에서 '현이와 덕이'란 이름으로 출연하고 주제가도 불렀다. 그는 1979년 6월 제3회 MBC 서울국제가요제에도 박경희가 부른 '사랑이었네'로 출전, 작곡가로서 내리 3번 무대에 선 이색기록이 있다. 1981년 10월 미국에서 결혼, 남편과 가족보컬그룹 '리 패밀리'를 만들어 한인회행사 등에 참여했으나 1983년 9월 갈라섰다. 오빠 장현은 설암(3기)으로 별세했다. 동생과 '현이와

덕이'로 활동한 그는 1975년 장덕과 '드래곤 랫츠'란 예명으로 미8군 무대에서 'To be a child again'(장덕 작곡) 노래로 데뷔했다. 그 해 5월 TBC TV '오라오라' 프로그램에 나가 동생이 작곡한 '꼬마 인형'을 부르며 국내 최연소 남매듀엣으로 선보여 관심을 모았다. 장현은 1976년 하이틴영화 봄을 일으킨 석래명 감독 영화 '고고알개'에, 1977년엔 '꿈 초롱 둘이서'에도 출연했다.

신신애, '세상은 요지경' 부르고 사기 당해

자신이 부른 노래가 현실이 된 가수들도 꽤있다. 신신애(1959년 ~, 전북 순창 출생)는 '세상은 요지경'을 부르고 노랫말("여기도 짜가 저기도 짜가, 짜가가 판친다~")처럼 한 때 사기를 당해 모든 것을 잃었다. 고려대 간호학과를 졸업, 고대부속 혜화병원에서 약 2년간 간호사로 근무한 그는 1977년 3월 18일 MBC 9기 공채탤런트 시험에 합격, 탤런트 겸 배우로 활동했다. 1993년 드라마 '희망'에 뽕짝네 역을 맡아 노래실력을 보인 게 가수 김수희 씨 눈에 띄어 음반을 내고 가요계에 뛰어들었다. 세상에 대한 냉소적 풍자곡 '세상은 요지경'에 이어 '돈아 돈아 돈돈'(1995년), '공짜는 없어'(2002년)를 발표했고 '오라가락'(2003년)을 끝으로 가수 일을 접었다.

패티김(1938년 2월 28일~, 서울 출생)은 '이별'을 부르고 1972년 작곡가 길옥윤과 이혼했다. 서울 중앙여고를 나와 1958년 미8군무대로 데뷔(1959년 1월 '린다 김' 예명 씀)한 그는 미국 가수 패티 페이지와 같은 명가수가 되고 싶다는 뜻에서 1960년 초 이름을 패티김(본명 김혜자)으로 바꿨다. 김상희(1943년~)는 고려대 법대출신의 학사가수로 '멀리 있어도'를 부르면서 남편이 미국으로 유학을 가게 돼 몇 년간 떨어져 있기도 했다.

'수덕사의 여승'을 히트한 송춘희(1937년 10월 8일~, 평안북도

영변 출생)는 자신이 부른 노래처럼 불교 삶을 살고 있다. 고모할 아버지가 서울 답십리 장로교회를 지었을 만큼 독실한 기독교집안에서 태어난 그는 이 노래가 뜨고 나서 불교로 개종했다. 동국대 불교대학원을 졸업, 승산 큰스님으로부터 '백련화란 법명'까지 받았다. 1956년 악극단에서 노래를 시작해 1963년 '삼다도 편지'로 데뷔한 그는 1966년 '수덕사의 여승' 발표 후 결혼도 않은 채 불교교사(법사)로 일하고 있다. 1983년 첫 찬불가앨범을 시작으로 5종의 찬불가음반을 냈고 '법화삼부경' 28품을 노래로 엮어 3장의 CD에 담았다.

조미미(1947년 1월 17일~2012년 9월 9일, 전남 영광군 출생)는 '바다가 육지라면'을 부르고 35살에 바다를 건너온 재일교포사업가(안성기 씨)와 결혼해 눈길을 모았다. 그는 목포여고를 나와 1965년 '떠나온 목포항'으로 데뷔했다. 노사연(1957년 3월 3일~, 경남 마산 출생)도 '만남'을 부르고 연하남자가수 이무송과 결혼해 화제가 됐다. 단국대 국어국문학과 재학 중 1978년 제2회 MBC 대학가요제에 나가 '돌고 돌아가는 길'로 금상을 받았다. 노사봉(언니), 현미(이모), 고니(이종사촌), 원준희(이종사촌 올케), 한상진(이종사촌), 최대석(작은 이모부, '만남' 작곡가) 등 연예인 집안이다.

윤항기, '나는 행복 합니다' 불러 행복한 삶

자신이 부른 노래로 자신감과 용기를 얻어 우뚝 선 가수들도 있다. 송대관(1946년 6월 2일~, 전북 정읍시 출생)이 대표적이다. 그는 '해 뜰 날'을 부른 뒤 쟁하고 해가 뜨듯 히트곡들을 쏟아냈다. "꿈을 안고 왔단다 내가 왔단다 / 슬픔도 괴로움도 모두 모두 버려라 / 안 되는 일 없단다 노력하면은 / 썩 하고 해 뜰 날 돌아온단다"로 나

가는 이 노래는 그대로 현실이 됐다. 이 노래로 최고가수가 되고 가요계 정상도 달렸다. 그는 '해 뜰 날'을 자신의 일생에 가장 큰 영향을 준 고마운 노래로 생각하고 있다. 첫 히트곡 '세월이 약이겠지요'도 그에겐 효자곡이다. 제목처럼 진짜로 세월이 약이 된 것이다. 전주 영생고를 졸업한 그는 1967년 '인정 많은 아저씨'로 데뷔했다.

태진아(1953년 4월 5일~, 충북 보은군 출생)는 늘 웃고 밝은 모습으로 노래를 부르는 스타일로 잘 나가는 가수가 됐다. 더욱이 연예명을 잘 지어 빛을 봐 흥미롭다. 그는 무명시절 국내 연예계 톱스타였던 배우 겸 탤런트 태현실, 인기가수 남진, 나훈아 이름의 한 글자씩을 따 태진아(본명 조방현)로 활동하며 트로트계 정상에 섰다. 1973년 '추억의 푸른 언덕'으로 데뷔한 그의 동생(조방원)도 노래를 취입하며 잠시 가수생활을 했다.

윤항기(1943년 9월 15일~, 충남 보령 출생)는 '나는 행복 합니다'를 불러 행복한 사람이 돼있다. 목사로서 신학대학까지 세워 예음예술종합신학교 총장으로 활동 중이다. 어려서 부모를 여의고 동생 윤복희(가수 겸 뮤지컬배우)와 외롭게 자라고 서울 청계천에서 거지생활까지 했지만 노래처럼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이다. 국내 최초 록음악밴드인 키보이스 멤버로 1959년 '정든 배'로 데뷔한 그는 가수, 작사가, 작곡가, 편곡가, 개신교목회자로 유명하다. 1974년 솔로가수로 데뷔해 '별이 빛나는 밤에', '장밋빛 스카프', '이제야 정말', '나는 행복 합니다', '나는 어떡하라고' 등 히트곡들을 쏟아냈다. 아들 주노(Juno, 본명 윤준호)도 CCM 음악가수로 CCM 음악보컬그룹 큐브(Cube)에 소속돼 활동하고 있다.

백영규(1952년 5월 22일~, 경기도 양평 출생)도 노래가 현실이 된 삶을 살았다. '슬픈 계절에 만나요' 히트 후 아내, 가족들과 헤어지게 된 것이다. 이 노래는 주인공을 임의로 설정해 만든 곡이다. 이별했기 때문에 현실에선 만날 수 없으니까 죽어서라도 만날 수 있길 바라는 내용이다. 1978년 숙대 캠퍼스타 이춘근과

혼성듀엣을 만든 뒤 '순이 생각'으로 데뷔한 그는 '잊지는 말아야지'로 뿔뿔이 이춘근의 결혼·출산을 계기로 팀이 깨져 솔로가수가 됐다. 통기타, 청바지가 청년문화의 상징이었던 그 시절 포크송 대명사였던 그는 김세화의 '아그네스', 박정수의 '그대 품에 잠들었으면', 방미의 '계절이 두 번 바뀌면'도 작곡했다. 장미희와 '슬픈 계절에 만나요'란 영화도 찍었다.

이밖에 '이별 아닌 이별'을 부른 이범학은 팬들의 기억에서 가물 가물할 정도로 가요계를 떠난 적 있고 이승철 또한 '방황'을 부른 뒤 신변문제로 방송출연을 못하고 방황하기도 했다.

이처럼 노래는 우리들 삶과 운명에 직·간접으로 영향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음악의 힘은 사람이 태어나기 전부터 영향을 미친다. 태교음악이 좋은 사례다. 미국 노스웨스트대학 연구팀은 음악을 가까이 하면 노화를 늦추는 데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 밝혔다. 이 대학의 청각신경과학연구소는 젊은 음악가, 나이든 음악가, 일반인으로 나눠 말소리에 대한 뇌의 자동반응을 쟀다. 결과 나이든 음악가가 곧바로 반응하는 것에서 우수함을 보였다. 뇌와 음악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으로 좋은 음악을 많이 듣는 습관을 갖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 특히 음악은 마음에 감동을 주면서 육체에 직접 작용하는 에너지가 되기도 한다. 사람 몸엔 특정소리의 파동이 공명하는 부분이 있어 음악이 소화를 돕는다. 따라서 맑고, 밝고, 신나고, 흥겨운 노래를 자주 부르고 될 수 있는 대로 많이 웃자. **IN**

필자 소개

마산 중·고 중앙대학교 신문방송학과, 신문방송대학원을 나와 1979년 <한국경제신문> 기자를 시작으로 언론계에 몸담아 오고 있다. 특히 '남인수가요제'에서 우수상을 받아 한국연예협회 가수분과위원회에 등록(865호) <이별 없는 마산항> 등을 취입했다. '기자 가수'로 가끔 무대에 서면서 글을 쓰고 있다.